

식품소비실태 조사로 시민건강의 안전망 확보

홍콩지사

홍콩 식품안전센터, 11년 만에 2차 식품소비실태조사 실시

- 홍콩 식품환경위생부(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) 산하 식품안전센터(Center for Food Safety : CFS)에서는 제2회 '식품소비실태조사(food consumption survey)'를 실시한다.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제1회 조사 이후 이번이 2번째다.
- Policy 21이라는 조사기관을 통해 2018년 4월 13일부터 약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 이번 '식품소비실태조사'는 홍콩의 18세 이상 성인 중 무작위로 약 5,000명의 설문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문조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다.

|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설문 조사 요원 |



출처 : www.cfs.gov.hk

| 제2회 식품소비실태조사 광고 문구 |



대중의 건강과 질병 확산 방지가 조사의 목적

- 조사의 목적은 홍콩대중의 건강과 홍콩 내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전반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, 특히, 식품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려면 식품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·조사 및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.
- 이에 따라 홍콩인들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실태 파악을 통해 식품안전리스크 평가, 식품정책수립 및 교육전략 마련을 꾀하고 있다.

일반정보	식습관	음식정보 인지
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나이 ② 성별 ③ 거주기간 ④ 민족배경 ⑤ 교육수준 ⑥ 직업 ⑦ 소득수준 	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뷔페형태 식사빈도 ② 육류의 지방섭취 ③ 가금류 섭취량 ④ 영양보충제 섭취 ⑤ 한약섭취 ⑥ 영양정보확인여부 ⑦ 신선식품 세척여부 	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식품구매 빈도 및 중요시하는 요소 ② 라벨링 확인여부 ③ 적정 과일 섭취량 ④ 과식원인 위험인지 ⑤ 각종 식품 함유성분의 건강연관 인지 ⑥ 과체중과 건강의 연관성 인지

홍콩의 식품안전 기준은 더 강화될 것

- 식품소비의 약 95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상 홍콩정부의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웰빙트렌드의 확산으로 식품 영양정보, 식품첨가물 함유여부, 당 및 소금성분의 포함정도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추세라서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도 홍콩정부에서 실시하는 '식품소비실태조사' 결과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.